

소나무

시어 정민주

지상과 지하에서
내란과 내분이
일어나던 날

땅이 갈라지는 굉음에
그만
아랫도리를 입지 못하고
밖으로 나왔다

겨울이 깊어갈수록
발가락마저 둔해져
서 있기조차
힘이 들었다

하얀 눈이
소복이 내리는 날이면
아픈 상처들이 소리없이 아물어

도라진
눈물 샘이
녹아내리고

시뻘건
뼈마디가
수액으로
새살이 붙었다

산 등허리 힘겹게 오르던
겨울별이
여행길에 오르면

발길질에 밝혀
냉증에 시달려도
수밀도는 물을 머금는다 